

# 사전입장권·그림대회로 본격 홍보...성공개최 열기 뜨겁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D-100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30일 개막 100일을 앞두고 사전입장권 판매, 시민 참여행사 그림 대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하면서 성공 개최를 향한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3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간 비엔날레 전시관, 양림동 일대에서 열린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 주제...9월7일~12월1일 비엔날레 전시관 등 30개국 73명 작가 참여...양림동 일대 현대미술 공간으로 활성화

◇그림대회 성료, 사전입장권 판매 개시  
먼저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지난 25일 입장권 예매 시작일에 맞춰 제59회 광주시민의 날 무대에서 제1회 입장권 전달식을 가졌다. 제1호 입장권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업 에스팀그룹 김소연 대표가 구매했다. 김 대표는 전달식에서 “올해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 1호 티켓 구매자가 돼 영광이다”며 “광주비엔날레의 동시대 실험적인 미술과 미래지향적 사회적 담론을 담아내는 점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를 모티브로 ‘마당’ 캔버스에 분필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다. 대회가 열린 ‘마당’은 광주비엔날레 30년 역사를 간직한 의미 깊은 공간으로 참가자들은 D-100을 기념하는 그림을 채워가며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특히 ‘기후위기’는 올해 비엔날레 주제인 ‘판소리, 모두의 울림’과 연결되는 지점이자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관심사다. 다시 말해 판소리를 매개로 한 소리와 공간의 조응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 삶과 예술의 공존을 환기한다.

심사는 강인호 광주미협 부회장, 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가 참여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9명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품권, 입장권 등 부상이 주어졌다. 이밖에 ‘광주비엔날레 응원 메시지 리본 달기 이벤트’도 진행돼 시민들은 성공 개최를 위한 바람을 기원하기도 했다.

박양우 대표 이사는 “D-100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그림 그리기 대회와 사전입장권 판매 개시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D-100을 기념하는 ‘마당 스케치북’ 그림 대회가 지난 29일 전시관 광장에서 열렸다.

〈광주비엔날레 제공〉

성공 개최를 향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며 “행사에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창립 30주년에 걸맞는 내실 있는 비엔날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양림동 일대 현대미술 공간으로 활성화

언급된 대로 이번 주제 ‘판소리, 모두의 울림’은 소리와 공간에 대한 탐색, 그리고 ‘판’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성을 함의한다. 국제무대에서 해박한 미술 이론, 전시기획으로 정평이 난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과 30개국 73명 작가가 참여해 다채

로운 전시를 선보인다. 용봉동 본 전시관과 양림동 일대가 현대미술 공간으로 활성화된다. 전환의 시대 지구상 공간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보존할 수 있을지 답론의 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관객들은 전시관 이외에 양림동 곳곳을 다니며 현대미술의 다채로움을 즐길 수 있다. 양림 문화센터를 비롯해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한부철 갤러리, 한희원 미술관, 양림살롱,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줄리

안 아브라함 토가, 리디아 오라만, 전형산, 마리나 로렌펠드, 사단 아피프, 김자이, 김형숙, 안젤라 블록, 김영은 등 작가들은 독특하면서도 실험적인 작품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식 개막 하루 전인 9월 6일 열리는 개막식은 특별한 이벤트로 진행된다. 소설가 한강의 글을 모티브로 작가들의 실험적인 개막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학술 심포지엄(9월 8일, ACC), 미술계 전문가 대상의 사전 오픈(9월 5일~6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투명한 수채화가 전하는 ‘물빛향기’

김일심 개인전, 31일~6월 12일 보성 아트홀

확득의 물 위에 수국의 그림자가 비친다. 물결이 일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명한 날씨인 듯하다. 보라색과 흰색, 연분홍색의 수국은 탐스럽고 아름답다. 고혹적이면서도 관능적이며, 청순하면 서도, 성숙미가 느껴진다. 작품 ‘5월이 되면’에서는 5월에서 6월로 이어지는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때쯤 보게 되는 수국은 늘 은은한 향기로 발길을 붙잡는다. 존재 그 자체로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한다. 시골 길을 걷다 어느 담장 너머로 핀 수국을 볼 때면 가만히 다가가 쓰다듬어 보고 싶어진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니 무언고 고개를 숙인 수국은 부끄러움 많은 우리네 옛 여인들 심성을 닮은 것도 같다.

김일심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보성 아트홀에서 31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전시 주제는 ‘물빛 향기’. 싱그러움 5월 끝날과 수목이 우거지는 6월 초에 열리는 전시는 물빛의 그윽한 향기를 발한다.

현재 보성 북내중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작가는 그동안 틈틈이 북내의 마을 풍경을 담았다. 물빛이 환기하는 30여 점 수채화는 작가의 감성이 이입돼 있다. 서정적인 그림은 보는 이에게 맑음과 청량함을 선사한다.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아니 아이들을 향한 시선이 물빛처럼 맑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한편 김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어디 꽃이 아닌 게 있을까? 30여 년 아이들의 시선(視線)으로 세상을



‘5월이 되면’

바라보니 온통 꽃 천지였다”며 “오늘 이곳에 모인 꽃들은 그들만의 색깔로 내게 왔다가 꽃향기 하나 스스욱 묻지 않고 간다. 수없이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 한 점 꽃이 피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명인·명무들의 ‘흥과 신명’

국립남도국악원 기획공연 명인전Ⅱ ...6월1일 진악당

명인 명무들이 펼치는 전통의 신명.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기획공연 명인전Ⅱ ‘흥과 신명’을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연다. 기악 독주, 판소리, 쇠춤 등 명인 명무들의 가무악 공연을 만나는 자리다.

이준용, 백남윤 등 명인들로부터 전수받아 정착시킨 ‘부포놀이’로 막을 연다. ‘부포’라고 부르는 뺨모를 쓰고 머리를 흔들면 연꽃 같은 모양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사방치기, 연봉놀이 및 이슬탈이, 퍼넌기 등 다양한 기교도 볼 수 있으며 전남도무형유산 호남여성농악 포장결립 상쇠 보유자 유순자 명인이 출연할 예정이다.

김무길 명인은 기악독주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로 관객들을 만난다. 단아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힘이 느껴지는 한갑득류 산조는 섬세한 변화를 추구하는 시김새, 원순 자출성(모지나 식지로 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소리) 등이 효과적으로 쓰였다.

판소리 ‘심청가’ 중 ‘주과포해’는 박양덕이 소리한다. 이 대목은 과씨 부인이 죽은 뒤 그녀를 묻어주며 축문을 지어 외우다 느끼는 슬픈 마음을 표현했다. ‘주과포해’란 술과 과일, 포, 식혜로 차린 간략한 제물(제사상)을 뜻하며 심봉사의 처연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명무들이 보여주는 전통춤도 레퍼토리에 있다. 경상국립대 민속예술무용학과 임수정 교



유순자 명인

김무길 명인

수는 단아한 멋과 비장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특징인 ‘살풀이춤(이매방류)’을 보여줄 예정이다. 진도 씻김굿의 구음을 바탕으로 남도 시나위 선율에 맞춰 풀어내는 춤이다.

이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을 역임한 박은하의 ‘쇠춤’도 관객들을 만난다. 1992년 ‘박은하의 춤과 소리’라는 공연에서 처음 선보였던 작품으로, 풍물 중 개인놀이인 ‘쇠놀이’를 재해석한 것이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우리 전통 명인들의 신명을 만나는 공연을 마련했다”며 “이 밖에도 오는 8일 예정된 해금 공연 ‘오래된 미래’, 14~15일 펼쳐지는 국악원 20주년 공연 ‘따남애기’ 등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판소리 춘향가와 이태백류 아쟁산조’

광주문화재단 6월1일 토요일 상설공연...주현주·박정진 무대

무등산 산자락에 울려 퍼지는 춘향가 난대목과 아쟁 산조의 선율.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여덟 번째 토요일 상설공연 무대로 판소리·산조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일원에서 펼쳐지는 ‘판소리 춘향가와 이태백류 아쟁산조’가 그것. 청년 국악인 주현주(판소리), 박정진(아쟁)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주현주 소리꾼은 판소리 ‘춘향가’ 중 ‘들었던 초

불을 대목’부터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어사출도 대목’을 부른다. 남원정보국악고(현 남원국악예술고)를 졸업한 주씨는 전남대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이어 ‘이태백류 아쟁산조’가 울려 퍼진다. 박종선, 김일구의 영향을 받아 이태백의 장작 가락을 접목해 만든 산조로 우조, 계면조 등 아쟁산조에 잘 쓰이지 않던 평조, 경드름, 봉황조, 완자걸이 등도 활용되는 작품이다.

전남도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한 박정진은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놀이 보유자 박관용 선생의 손자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한국 국악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6월 8일에는 국악장작 무대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치다’가 ‘감성콘서트-우공이산’이라는 주제로 찾아올 예정이다.

전통문화관 선미영 팀장은 “무등산의 녹음이 우거진 시원한 전통문화관에서 우리 옛 소리를 전하는 예인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판소리는 대목과 아쟁 산조를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